

## ▶ 내신 기출 문학 창비-상편 ◀

### I 문학의 본질

*사랑 (30문제)-----	1쪽
*고향 (45문제)-----	10쪽

### II 문학의 수용과 생산

*사과를 먹으며 (31문제)-----	30쪽
*봉산탈춤 (43문제)-----	42쪽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31문제)-----	68쪽
*사평역 / 사평역에서 (26문제)-----	83쪽
*예덕선생전 (32문제)-----	94쪽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는 것 (12문제)-----	108쪽
*여백을 위한 잡담 (18문제)-----	115쪽

### III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주몽 신화 (31문제)-----	123쪽
*국수 (33문제)-----	138쪽

◆빠른 전체 정답-----	154쪽
◆해설-----	156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사랑” 분석 췌미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랑의 속성(불변성, 항상성)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화자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가르쳐 준 대상

▶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러나 너의 얼굴은

시상의 전환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변하고 있는 중의 순간성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에게 일어나는 변화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화자에게 불안을 일깨움.

▶ 혼돈과 불안을 동반하는 사랑

번개처럼

번개처럼

변치 않는 사랑이 파괴와 생성의 불안한 순간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함.

금이 간 너의 얼굴은

불안과 균열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얼굴

▶ 균열 속에서 깨닫는 사랑의 역할

☐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주지적, 상징적

☐ 주제 변화까지 끌어안는 사랑의 가치

☐ 특징 ▪ 대립되는 시어와, 구조의 반복 및 변형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 추상적이고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의미 해석을 열어 둠.

대표 구절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변치 않는 → 꺼졌다 살아났다

사랑(너) → 불안(너의 얼굴)

사랑의 췌미

1연

변하지 않는 사랑

2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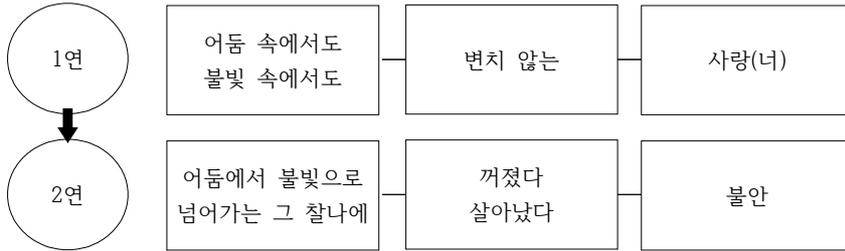
변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

3연

찰나적인 깨달음

## “사랑” 학습 활동 문제

**1** 이 작품의 1연과 2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자.



**2** 1번 활동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화자가 ‘너의 얼굴’을 ‘불안하다’고 표현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 사랑”이 안정감을 준다면,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변화의 과정에서 “너의 얼굴”은 “꺼졌다 살아났다” 하기에 불안감을 준다. 자신의 다양한 사랑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사랑이 변치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과정이 늘 똑같고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화자 역시 ‘너’로 인해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지만, 찰나의 변화 속에 드러나는 낯선 “너의 얼굴”에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3** 다음은 이 작품을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세 학생들의 대화를 참고하여 ‘지유’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짐작해 보자.

도은: 1연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며 “변치 않는”이라는 표현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민준: 음, “금이 간 너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보면 변치 않는 사랑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재형: 글썄, 변치 않는 사랑을 부정한다기보다는 변치 않는 것, 변하는 것 모두 사랑의 과정이란 뜻이지 않을까?
지유: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난 이 시에서 “금이 간 너의 얼굴”이 불안과 균열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얼굴을 뜻한다고 생각해.

**4** 다음 글을 참고하여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 작품에 드러난 ‘사랑’의 상징성을 이야기해 보자.

김수영은 6·25 전쟁으로 북한군에 징집되기도 하고 부산 포로수용소에도 수용되는 등 격변의 역사를 경험했다. 전쟁 이후 시 쓰기와 번역에 전념하던 그는 이승만 독재에서 4·19 혁명으로 건너가는 현대사를 통과하며 사랑과 혁명을 노래한다. 「사랑」은 고난과 희망의 역사적 교차 속에서 전개된 4·19 혁명 직전에 쓰인 작품으로 개인적 사랑과 역사적 사랑을 절묘하게 통합하고 있다. 그의 삶에서 사랑의 순간은 생성의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 시의 ‘너’는 일차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작품의 의미를 개인과 사회의 관계로 확장해 본다면 한 개인이 끌어안고 변화시키며 살아 내야 하는 사회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사랑’은 개인적 사랑을 넘어,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대의 고통을 견디며 나아가는 역사적 사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번개처럼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김수영, '사랑'

**효문고등학교 (서울)**

1. 위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② 도치 구문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한다.
- ④ 의미의 대응 구조를 통하여 사랑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표현했다.
- ⑤ 공감각적 심상을 통하여 사랑의 이미지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2. <보기>는 뒷글을 읽은 친구들의 대화 내용이다. 시를 바르게 감상하지 못한 사람은?

<보기>

홍민: 1연에서는 사랑의 불변성을 노래하고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혜: 그래. 1연에서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안정감을 준다면 2연에서의 불안감은 사랑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지.  
시경: 그렇다면 사랑은 불변성과 더불어 불안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말이군.  
혜진: 맞아. 3연의 '금이 간 너의 얼굴'에서 화자는 균열 속에서 깨닫는 사랑의 역설을 발견한 거지.  
성용: 이 시가 4·19혁명 직전에 쓰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개인적 사랑과 역사적 사랑을 절묘하게 통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① 홍민      ② 지혜      ③ 시경
- ④ 혜진      ⑤ 성용

**풍암고등학교 (광주)**

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경미: 이 시는 상징적인 시어를 많이 사용해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것 같아.  
광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너는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니?  
경미: 글썽, 사랑이라고 하면 그 대상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같은 구체적인 존재가 떠오르는데, 이 시를 읽으니 '사랑'의 범위가 그보다 훨씬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광자: 나도 그렇게 느꼈어.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지만, 때로는 부정적 감정도 생겨나잖아. '사랑'은 고통과 아픔을 포함하는 것이자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경미: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럼 (      ㉢      )도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랑'이 될 수 있겠다.

- 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 항상 긍정적인 것
- ② 분단과 독재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를 얻는 것
- ③ 격동의 사춘기를 겪으며 청소년이 어른이 되는 것
- ④ 작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창작의 고통을 겪는 것
- 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연인이 다툼과 위기를 겪는 것

**풍암고등학교 (광주)**

4. ㉡에 나타난 표현 기법이 모두 사용된 것은?

- ①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②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 ③ 눈은 살아 있다 /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④ 임은 물같이 까딱 않는데 / 파도야 어찌란 말이나 / 날 어찌란 말이나
- ⑤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 쪽도 짚검볼도 가락늪도 머리카락도 형값 조각도 막대 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짓도 타는 모닥불

**서령고등학교 (충남)**

5. ㉠을 통해 드러내는 사랑의 속성은 무엇인지 두 어절로 쓰시오.

**서명고등학교 (충남)**

6. 위 시에서 반복 사용된 ㉠을 통해 작가가 강조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서술하시오.

**하남고등학교 (경기)**

7.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화자의 어조가 변하고 있다.
- ③ 1연과 2연에서 화자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 ④ 반복과 생략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제목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번개처럼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김수영, '사랑'

**가좌고등학교 (경기)**

8. 위 시의 시어 및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너'는 불변적 사랑의 대상이다.
- ② '사랑'은 '찰나'의 순간 '금'이 가는 '불안'한 존재이다.
- ③ '너'는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변화와 이행의 과정을 맞는 대상이다.
- ④ '금이 간 너의 얼굴'에 드러난 불안함을 통해 사랑을 배운다는 역설이 드러나 있다.
- ⑤ '번개'는 '찰나'와 연결하여서는 아주 짧은 순간으로, '금'과 연결하여서는 파괴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

9. ㉢의 상징적 의미를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10. 위 시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접속부사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ㄴ.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다.  
 ㄷ. 의미의 대응 구조를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ㄹ. 대상과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ㄷ, ㄹ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11. 위 시의 1연과 2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1연> - 어둠 속에서도 - ( ㉠ ) - 사랑  
 ↓ 불빛 속에서도  
 <2연> - ( ㉡ ) - 꺼졌다 - ( ㉢ )  
 살아났다

- ㉠:
- ㉡:
- ㉢: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12. 위 시의 주제와 성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1. 주제의 마지막 부분을 명사로 제시할 것.
- 2. 성격은 두 개를 적을 것.

I 사랑

1.㉔

▶ 공감각적 심상은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접속의 말에 대하여:

ㄱ.접속 부사: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등 →문장을 이어줌

ㄴ.접속 조사: 와/과, 하고, 이며, 이랑...등 →단어를 이어줌

2. 도치법: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 강조하는 표현법.  
(사과를 먹다 → 먹다 사과를)

3. 공감각 vs 복합 감각 (★★)

ㄱ.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ㄴ.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 공감각 ]
-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 복합 감각 ]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넣어둬, 패턴 공략◀

시에서 <말의 반복>은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와 관련된다.

2.㉔

▶2연에선 사랑의 특성이 불안감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불안감이 사랑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님.

3.㉑

▶㉑에는 고통이나 아픔과 같은 부정적 상황이 없음.

4.㉔

▶㉑과 ㉔에는 직유법과 반복법이 드러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직유법 vs 은유법 (★★★)

- ㄱ.직유법: A는 B와 같은 (사과 같은 얼굴)
- ㄴ.은유법: A는 B이다 (우리의 지폐는 박물관이다)

2. 열거(나열) vs 반복 vs 대구 (★★)

- ㄱ.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ㄴ.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운율 형성!  
(눈, 눈, 눈이 내린다)
- ㄷ.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운율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7.㉔

▶어조는 동일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시적 어조(★)

:시적 자아에 의해 표현되는 목소리의 특징.  
→시의 분위기나 정서 및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

-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8.㉔

▶'금'이 가는 균열 속에서 사랑의 역설을 깨닫는 것이지 '금'이 가는 불안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

10.㉔

▶ㄱ: '그러나'라는 접속부사를 통해 시상을 전환함. ㄴ:1연과 2연은 의미가 각기 대응됨.

13.㉔

▶'개인적 사랑과 역사적 사랑을 절묘하게 통합'한다는 <보기>를 통해 ㉔가 가장 적절함.

14.㉓

▶㉓에서는 균열 속에서 깨닫는 사랑의 역설을 나타냄.

15.㉓

ㄱ: 시간의 흐름은 없음 ㄴ:역동적인 이미지는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시의 전개 방식 (★)

- ㄱ.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 ㄴ.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 ㄷ.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 ㄹ.대립적 전개
- ㅁ.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 ㅂ.선경후정: 경치+정서
- ㅅ.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

2. 역동적(★)

: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의 의미를 지님. 움직임(동사)과 관련된 표현이 일단 있어야 하지만 시에서 대상의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역동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보통 역동적인 분위기의 시는 대상의 움직임과 더불어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도 그와 어울리게 밝고 활발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많다.